



이미지 출처
갑분 개구리

언제부터 홍머병 청개구리가 되었는지
하기 싫은 걸 해도 딱짓, 하고 싶었던 걸 해도 딱짓을 합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걸 하면 다르리라 자신하는 것도 이제는 조심스럽습니다

엄마 말마따나 역시 사람은 언제나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딱짓 1티어인 게임, 유튜브 콘텐츠를 파야 하는지
개발 공부는 어느 방향으로 잡고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선택할 능력은 되는지

생각할 시간에 놀았기 때문에(놀랍게도 현재 진행 중)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동화 속 청개구리처럼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다가 꼬일까 봐
오늘도 이 악물고 재밌으면서 해야 하는 것, 날먹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